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 공동 출장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2023. 5.

|| 목 차 ||

I. 출장목적	1
II. 출장개요	1
III. 주요 연수내용	1
IV. 주요일정	2
V. 방문국가(도시) 주요 현황	3
VI. 주요 기관방문 내용	14
VII. 정책제안	52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목적

-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된 제주특별자치제도와 청년 및 인구정책, 지속가능 발전전략 등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는 이탈리아의 분야별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제도, 청년 일자리, 관광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강화방안 모색

II 출장개요

- 기간: 2023. 4. 24.(월) ~ 2023. 5. 1.(월), 6박8일
- 방문도시: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 연수단: 총 21명(명단 붙임)
 - 행정자치위원회(4명), 전문위원실(5명), 집행기관(8명), 합의제행정기관(1명), 유관기관(3명)

III 주요 연수내용

- (정치 및 행정제도 사례조사) 이탈리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고, 지방정부는 주정부(Regione, 레조네), 도정부(Provincia, 프로빈차), 기초정부(Comune, 코무네)로 3단계의 중층제로 구분됨. 헌법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로마시 등 시청과 시의회 방문을 통해 자치권 수준과 활용,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권한 등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

-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조사) 이탈리아는 2014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Comune 통합 정책과 최대 3만유로 재정지원 등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사례조사 수행.
- (관광세 도입 효과 등 사례조사)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등 주요 도시는 4성급 이상 호텔 숙박객, 유적지와 박물관, 레스토랑, 관광버스, 유람선 등에도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광세 재원은 문화재를 비롯한 관광분야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관광세 부과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해소와 재정적 효과, 관광업계 갈등 관리 등에 대한 사례조사 시행.
- (지속가능 정책방안 모색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시의회는 2018년 양 기관의 자매결연을 위한 MOU를 체결, 이탈리아와 제주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과제 발굴과 관광객 수용력에 대한 공동연구 및 연대와 국제컨퍼런스 공동개최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방안 모색 논의.

IV 주요일정

월 일(요일)	방문국	주요일정	비고
4.24(월)	한국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출발(8:40) → 김포도착(9:50) • 인천출발(13:25) → 이탈리아 도착(19:30) 	이동일
4.25(화)	로마	<국가공휴일-이탈리아 해방일(Liberation 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탐방 : 바티칸시국 	공휴일
4.26(수)	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기관방문 • 로마시청 기관방문 	
4.27(목)	로마 피렌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렌체 국제 수공예전시 박람회 방문 	

4.28(금)	피렌체 베네치아	• 베네치아 시의회 기관방문	
4.29(토)	베네치아 밀라노	• 베네치아 운하 방문	
4.30(일)	밀라노	•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기관 방문 • 밀라노 출발(21:30)	
5.1(월)	한국	• 인천도착(16:30) • 김포출발(19:20)→제주도착(20:30)	이동일

V 방문국가(도시) 주요 현황

이탈리아



□ 개요

- 이탈리아는 남유럽과 지중해의 반도에 위치한 공화국임. 1946년 국민투표로 탄생한 이탈리아 공화국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한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음.
- 지방정부는 20개의 지역정부(Regione)와 107개의 도정부(provincia), 7,960개의 기초정부(Comune)로 구성됨. 특히,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Friuli-Venezia Giulia), 사르데냐(Sardegna), 시칠리아(Sicilia),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에 대해서는 헌법에 의해 특례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
- 주(Regione), 도(Provincia), 시(Comune)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거주 주민이 직접선거 및 보통선거로 선출하고 있으며, 선거권은 18세부터 주어지고 피선거권은 25세임.
- 주의회 의원과 도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주의회 의원은 겸직이 금지되고 있고 도시의회 의원은 겸직이 허용됨.
- 대륙법계 국가중에서 단일국가 통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헌법에서도 준연방제적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일반현황

- 국 명 : 이탈리아 공화국(La Repubblica Italiana)
- 국 기 : 녹색(자유), 백색(평등), 적색(박애)
- 대통령 : Sergio Mattarella(2015년 2월 취임)
- 총 리 : Giorgia Meloni(2022년 10월 취임)
- 정치체제 : 민주공화제

- 국 회 : 양원제
- 인 구 : 5,898만 명(2022년 기준)
- 면 적 : 301,336km²(한반도의 1.5배)
- 수 도 : 로마(Roma)
- 주요도시(광역시 기준 인구) : 로마(423만명), 피렌체(99만명), 베네치아(84만명), 밀라노(324만명), 나폴리(298만명), 토리노(221만명), 제노바(86만명)
- 민 족 : 이탈리아인
 - 북부 :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 남부 :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등 소수 거주
- 공식언어 : 이탈리아어
 - Trentino-Alto Adige 지역은 독일어 병용
 - Valled'Aosta 지역은 프랑스어 병용
 - Trieste-Gorizia 지역은 슬라브어 병용
- 종 교 : 카톨릭(83.3%), 정교회(2.2%), 이슬람(2%), 개신교(1.2%), 기타(8.9%)
- 독 립 : 1861년 3월 17일 이탈리아 왕국 선포
- 기 후 : 지중해성 기후, 북부지역 일부 대륙성 기후
- 산업구조 : 서비스업(79%), 제조업(18.8%), 농업·임업·어업(2.2%)
- 시 차 : 우리시간 -8시간, 3월 마지막 일요일~10월 마지막 일요일 간 실시되는 섬머타임 기간의 시차는 -7시간

□ 이탈리아 정치구조

- 이탈리아 정치체제는 민주공화제이며, 국가원수는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로 상·하원에서 선출하고 임기 7년임(재선 가능).
- 국가원수는 의회해산권과 국군통수권, 총리를 비롯한 각료 임명권을 보유함.
- 총리는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로 내각책임제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각을 지휘하고 국정을 총괄함.
- 이탈리아 의회는 상·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5년으로 상원 321명(종신의원 6명 포함), 하원 630명임.
-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당(PD), 오성운동(M5S), 동맹(Lega), 전진이탈리아당(FI) 등임.

□ 이탈리아 경제

- 이탈리아 경제규모는 2020년 통계청 기준 GDP는 1조 96,516억 유로로 세계 8위 수준임.
- 1인당 GDP는 26,187유로이며, GDP 성장률은 -8.9%임.
- 무역규모는 전체 약 9,135억 유로로 수출은 약 4,870억 유로, 수입은 약 4,265억 유로임.
- 이탈리아 전체 실업률은 9.4%이며, 이중 청년(15세~24세) 실업률이 29.7%로 높음.
- 이탈리아 산업은 중화학, 공업, 농업 등 전반이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 기계, 제약, 화학, 패션·고급소비재, 우주항공·방위, 전시산업 분야가 강세임.

- 또한 중소기업의 건실성 및 첨단기술이 경제의 강점이며, 지역산업 공동체 중심으로 각 분야별 기술력이 특화되어 있음.
- 그러나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에 대한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 기반의 남부지역의 소득은 제조업 기반의 북부지역 소득의 60~70% 수준에 불과함.

□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

- 한국과 이탈리아 외교관계는 1884년 수교 후 1956년 국교를 재수립함.
- 2021년도 한국과 이탈리아 총 교역액은 126억 달러이며, 수출 부문은 46억 달러로 자동차, 합성수지, 강판 등이 주요 품목이고 수입 부문은 80억 달러로 가방, 의약품, 신발, 의류 등이 주요 품목임.
- 교민과 체류자 부문은 2020년 기준 약 4,089명이며, 이중 롬바르디아주(밀라노)에 1,771명, 라치오주(로마) 1,185명, 기타지역 1,13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민 구성 부문은 자영업 540여명, 피고용인 640여명, 종교인 440여명, 유학생 420여명, 동반가족 1,6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¹⁾

-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
 - 주(Regione) - 도(Provincia) 및 광역시 (Città Metropolitana) - 시(Comune) 3단계로 구성

1)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는 이탈리아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 (<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index.do>).

○ 이탈리아 20개 주(Regione)

주(주도)	주(주도)
아브루초 Abruzzo (라퀼라 L'Aquila)	피에몬테 Piemonte (토리노 Torino)
칼라브리아 Calabria (카탄자로 Catanzaro)	풀리아 Puglia (바리 Bari)
캄파니아 Campania (나폴리 Napoli)	사르데냐 Sardegna (칼리아리 Cagliari)
에밀리아-로마냐 Emilia-Romagna (볼로냐 Bologna)	시칠리아 Sicilia (팔레르모 Palermo)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 Friuli-Venezia Giulia (트리에스테 Trieste)	토스카나 Toscana (피렌체 Firenze)
리구리아 Liguria (제노바 Genova)	트렌티노-알토 아디제 Trentino-Alto Adige (트렌토 Trento)
라치오 Lazio (로마 Roma)	움브리아 Umbria (페루지아 Perugia)
롬바르디아 Lombardia (밀라노 Milano)	발레 다오스타 Valle d'Aosta (아오스타 Aosta)
마르케 Marche (양코나 Ancona)	베네토 Veneto (베네치아 Venezia)
몰리제 Molise (캄포바쏘 Campobasso)	움브리아 Umbria (페루자 Perugia)

자료 :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index.do>)



자료 :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it-milano-ko/index.do>)

□ 방문도시 개요

1) 로마(Roma)

○ 현황

주	라치오	
광역시	로마 수도광역시	
인구	423만명	
면적	1,285km ²	

-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고, 인구 423만명의 가장 큰 대도시로 라치오 주의 중심도시임.
- 로마는 15개의 구(Municipio, 무니치피오)로 구성되어 있음. 당초 20개 구에서 1992년 주민투표를 통해 제19구가 독립하였음. 2013년 3월 11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19개에서 현재의 15개 구로 조정하였음.
- 로마는 유럽 문명의 중심으로 중세시대부터 바로크시대까지 문명의 발상지이자, 수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임.
- 현재 로마는 유적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현대 문명과의 조화를 이루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인이 함께 지키는 ‘로마’를 진행 중임.
-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로는 전 세계 가장 작은 국가인 ‘바티칸시국(원어)’과 콜로세움(원어), 포로모마노(원어), 개선문(원어), 트레비분수(원어) 등이 있음.

2) 피렌체(Firenze)

○ 현황

주	토스카나	
광역시	피렌체	
인구	99만명	
면적	102,41km ²	

- 피렌체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최대 도시이자 주도임. 아르노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상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는 건축과 예술로 유명한 곳임.
- 중세 유럽의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임. 1982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됨.
- 피렌체는 5개의 자치구(Quartieri)로 구성되어 있음.

3) 베네치아(Venezia)

○ 현황

주	베네토	
광역시	베네치아	
인구	84만명	
면적	414,57km ²	

-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이며, 동시에 해당 도시를 수도로 삼던 과거의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명임.
- 베네치아는 6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음.
- 구도심 도시 전체에 수로를 통해 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물의 도시’로 유명하며,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 내부에는 자동차 도로가 없음. 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면이 상승하여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고, 오버투어리즘으로 환경오염이 주요 현안지역임.

4) 밀라노(Milano)

○ 현황

주	롬바르디아	
광역시	밀라노	
인구	324만명	
면적	183,77km ²	

- 이탈리아 반도의 북서부에 있는 도시로, 롬바르디아의 중심 도시이자 이탈리아의 경제수도로 불림.
-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의 최대도시로, 롬바르디아 평원에 위치하고 있음. 시내 인구는 수도 ‘로마’ 다음으로 많고 밀라노는 국제, 다국적 도시로도 불리는데, 인구의 15%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수도라고 할 정도로 이탈리아 최대의 경제 중심지이며, 세계 패션과 디자인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 도시임.

VI 주요 기관방문 내용

1.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방문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방문 개요

-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10:00
- 장 소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 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수단, 전예진 문화원장, 최용준 주무관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운영 개요**

-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2016년 10월 로마시에 개관함.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우수성을 문화 강국인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국과 이탈리아 간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문화교류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문화원은 문화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연간 운영비는 10억원임.
- 한국문화원 위치 및 운영 시간

위치	비아 노멘타나 10/12, 로마, 이탈리아	
운영 시간	리셉션 : 10:00~18:00 도서관 : 12:00~16:00	

자료 :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s://italia.korean-culture.org/ko>)

- 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공연 및 행사와 전시사업,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 강좌(한국어 강좌, 한식 강좌, 문화 강좌) 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연수 내용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류 교류 및 허브 지향>

- 로마 시민을 비롯한 이탈리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k-pop 등 한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 국가들 중 인지도가 높은 국가였음.
- 코로나19 이후에는 이탈리아 국내 의료와 안전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며 K-pop 등 한류의 영향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드라마와 영화의 큰 인기로 코로나19 이전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다고 평가되고 있음.
 -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아닌 패션, 음식, 문화에 대한 각 분야별 구체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임.
- 현재 한국문화원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지를 이용한 전시와 한식 강좌를 중점적으로 운영 중임.
 - 새로운 예술문화 사업을 소재로 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한지를 이용한 예술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오징어 게임’ 등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한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음.
 -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전시, 행사, 강좌 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중고생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한지를 소재로 한 전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의 2023년 첫 전시회임.

- 한지 작품 전시 작가는 동덕여자대학교 이승철 교수의 작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회 주제는 ‘한지 : 삶에 깃든 종이 이야기’임.
- 한지 전시회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2024년까지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고 미국 등 순회 전시가 예정되어 있음.



<한국문화원에 전시 중인 한지를 이용한 작품>

- 한국문화원의 2023년 강좌 운영 사업으로 한국어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이탈리아 젊은 층이 관심도가 높은 강좌는 ‘한식’ 강좌임.
 -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생활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크며 그 중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판단됨.
 - 한국의 ‘情’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전통음식, 가정식, 독특한 길거리 음식문화 등을 이탈리아 현지에서 홍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한식 강좌는 한국문화원 한식 강좌실에서 대면으로 진행이 되며, 2023년 상반기에 15주 수업으로 진행함.
 - 한식 강좌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좌(최소인원 7명, 최대인원 10명)이며, 등록비는 1인 150유로이고 온라인으로 강좌 신청이 가능함.
- 한국문화원은 한식 조리가 가능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로마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은 강좌임.





<한국문화원 한식 조리실>

- 이외에도 한국 문화원은 한국 전통 사물놀이 강좌가 가능한 시설을 완비하고,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체험관(포토존 운영)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문화원 전통 사물놀이 시설 및 디지털 체험관>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제주 홍보 사업 주요 현황>

- 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 ‘제주’를 주제로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2018년에 제주도 생태관광사진전 ‘화산섬 제주도와 바다의 여인 해녀’ 전시회가 개최됨.



<한국문화원 화산섬 제주도와 바다의 여인 해녀 사진전(2018)>

자료 :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https://italia.korean-culture.org/ko>)

- 2022년 11월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국을 찾아서’ 주제로 한 유명 관광지에 대한 소개행사를 로마 Angolo dell’Avventura 협회관에서 개최함(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2023).

- 해외여행에 관련 문화협회원들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대표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함(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2023).



자료 :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https://italia.korean-culture.org/ko>)

-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공연 관람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문화를 소개함.
 -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 - <늦>을 발표하였으며,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람이 가능함.
 - <늦>은 ‘거기 아무도 없어요(N.O.T-No One There)?’의 약자로, 치매에 걸린 80살의 할머니가 10살 소녀가 되어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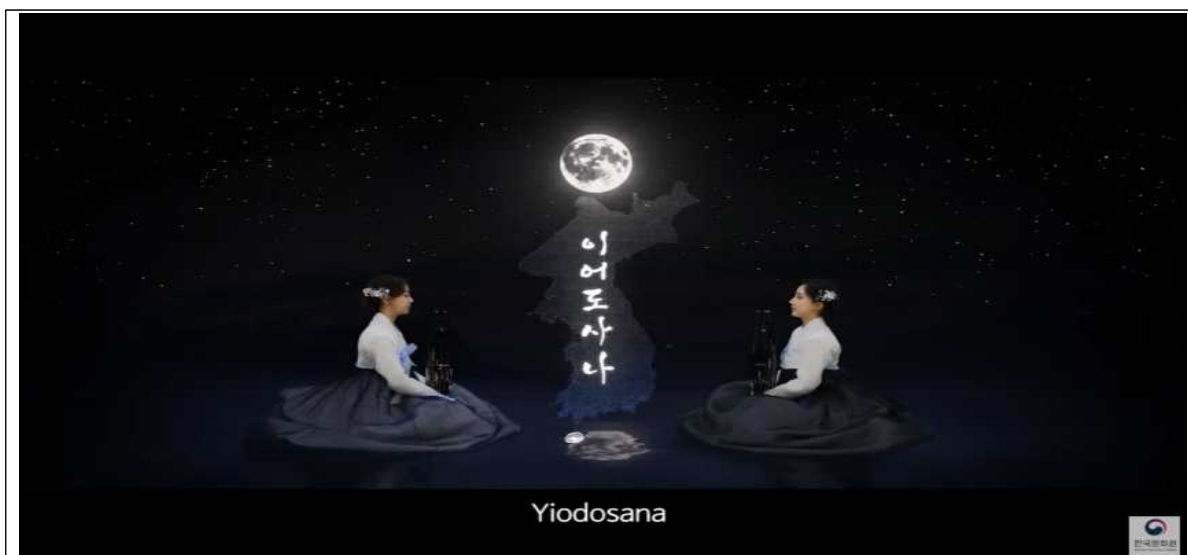
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냄.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이 시대는 세대, 남녀, 노사, 이념, 가족 간의 갈등으로 가득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통의 현상들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표현하면서, 날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라고 외치고 있을지 모를 이들의 모습을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냄(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2023).

- 또한 <눓>은 제주방언 ‘눓’으로 얼굴을 의미하는 낮(面)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은 나와 너, 당신과 당신,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어진 경계들과 사회적 갈등을 소통을 통해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2023).



자료 :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https://italia.korean-culture.org/ko>)

- 2022년 3월 전통 <가.무.악>이 어우러진 한국 전통 고유의 예술을 CG 기법을 활용하여 공연을 제작하였으며, 제주의 해녀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오면서 노를 저을 때 불렀던 제주도 민요임. 자리(Za-Ree)는 이어도 사나가 갖고 있는 제주도 해녀들의 삶의 애환을 표현하려고 하였음(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2023).



자료 :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https://italia.korean-culture.org/ko>)

-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방송매체를 통해 제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제주해녀를 비롯한 제주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향이 높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관관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문화원이 수시 협의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기념품 전달.



<기념품 전달식>

□ 정책적 시사점

- (제주 국제교류 정책 및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정책과 연계) 한국문화원을 통해 제주를 알리는 홍보정책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 확인함.
 - 이탈리아에서도 제주를 알고 있으나 여행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함. 제주를 담은 각종 한국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영상(가족여행 선호패턴에 따른 유튜브용 활성화도 필요)을 제작하고, 한국문화원을 매개로 로마, 피렌체, 나폴리, 밀라노 등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를 검토할 필요 있음.
 - 제주를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의 샤르데냐로, 감귤을 시칠리아의 오렌지로 소개하면 긍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연수내용을 바탕으로 홍보 컨셉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제주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교류 정책을 통해서
 - 2단계) 국제교역 등을 통해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정책근거 마련차원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로마시청 방문

□ 로마시청 방문 개요

-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14:00
- 장 소 : 로마시청
- 참석자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수단
 - 로마시장 외교보좌관 Gabrielle Annis
 - 로마시장 국제관계보좌관 Ugo Papi 외 관광국 관계자

□ 로마시

- 이탈리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주정부(Regione), 도정부(provincia), 기초정부(Comune)로 구분되어 있음. 특히, 헌법 제5조에 근거 지방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1년 지방정부에 관한 헌법 제5장에 관한 개정이 국민투표(투표율 64.2%)에 의해 승인됨. 이후 지방정부 종류와 관련 규정 등이 헌법 제114조부터 규정되어 있음(안영훈, 2016).
 - 이탈리아는 헌법상 자치권, 자치행정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받고 있음.
- 로마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 제114조에 근거 공화국의 수도는 ‘로마’이며, 그 지위는 국가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로마시청 연수 내용

<이탈리아 및 로마 주요 지방자치분권 주요 내용>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변화되어 왔음. 이탈리아 독립 이후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방자치권 강화 등이 명시됨에 따라 시행됨.
- 1993년 시장직선제로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은 로마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시민 스스로가 지역의 대표를 뽑고 대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이탈리아 국민이 유일하게 자치권에 대해 동의하는 하는 부분은 직접선거임. 시민주권을 찾는 것이며, 지역을 이끌어 가는 시장을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이 선출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 중앙과 지방의 관계설정에는 국방과 경찰 등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법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에서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자치영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함.
- 로마시는 이탈리아 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예산적 지원시책을 받고 있음.

<로마시의 인구정책, 관광정책 관련 주요 내용>

- (인구정책) 로마시는 수도이지만,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기초정부(Comune)에 대한 통합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다만 로마시 내 Comune 간 인구 편차가 존재하더라도 로마 중심지에 사업장을 두고 외곽에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로마시민으로 인정하여 정책을 추진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이탈리아는 연간 4천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

를 위해 세계적인 골프대회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 패션사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부응하기 위해 로마시에서는 2년 내에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하고, 고급 관광객 유치위해 세계적 명성 호텔 유치 노력중임.

○ **(과잉관광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사항)** 약15년 전부터 로마는 머무는 관광지에서 거쳐가는 관광지로 바뀌면서, 원주민들의 생업종사, 로마전통 수공업, 도서출판 등 종사하는 주민이 지역을 떠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로마 전통의 소멸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정책적 고민사항임.

- 거쳐 가는 과잉관광으로 유사 상황에 놓인 바르셀로나 등 도시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에어비엔비에 대한 규제, 민박 숙박 정원 축소 등 규제를 강화해서 도시 특징과 고유성을 살리고 기존 도시민들에 대한 존중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임.

- 로마시의 환경기초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 적정수에 대해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부산과 함께 '2030년 국제엑스포' 유치를 경쟁 중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2천만명의 관광객 유치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로마시 전통 보존 강화 정책)** 로마시는 시민 수 보다 관광객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과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싶은 주민들간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어찌면 상충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로마시는 이와 같은 보존과 개발에 대한 가치충돌에 대해 '지역의 고유성을 잃어버리면 로마 전체를 잃어버린다'는 가치를 교육함으로써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원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고유성을 유지(시민 생업유지 포함)할 수 있는 조사, 연구 등

을 실시함.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류의 재산인 로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함.

○ (관광세 도입 배경 및 성과) 2010년부터 로마시는 호텔 숙박객과 유적지, 박물관 등에 관광세를 신설하여 부과하고 있음. 이는 유물을 비롯한 유적지 복원과 당시 정부의 긴축예산정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로마시의 결정이었음.

- 관광세 도입 시 로마시 내 숙박업계 중심으로 관광객 감소 우려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여으나, 시행 후 관광객 감소 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부과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내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탈리아 관광을 포기할 만큼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로마시청 관계자 간담회>

- (제주의 관광세 도입에 대한 관계자의 제언) 제주는 섬, 기후 등 독보적인 국제관광지이기면서 인근 대체 관광지역이 없기에 도입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초기에 돈을 받는다는 것에 예민할 수 있으나 환경보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관광객이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접근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제언함.
- 또한 이탈리아 헌법 제116조에서는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Friuli-Venezia Giulia), 사르데(Sardegna), 시칠리아(Sicilia),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형태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음(이탈리아 헌법, 2023).



<제주4.3 뱃지 전달식>



<로마시청 전경>

□ 정책적 시사점

- (관광 및 생활인구를 고려한 원도심 활성화 및 인구 정책) 로마시는 사업장 주소는 관내에 있으나 거주지 주소는 관외에 있더라도 시의 인구로 간주하고 있음. 이는 행정수요 발생주의 차원에서 읍면동 차원의 행정서비스 규모(조직, 인력 예산 등), 더 나아가 주민등록지 인구기준으로 판단하는 선거구 획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아울러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관광 플랫폼 전문회사 등과 연계하여 도내 관광객 여행패턴(주요 방문지, 숙박형태 등) 등을 분석하여 원도심의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고부가가치 유발 관광객 유치 위한 스포츠 산업 육성 정책) 이탈리아는 고급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골프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국제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정책 취지에 맞춰 골프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산업차원에서 접근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종목별로 대회유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육성과 연계, 지역 자산(마을, 조합 등 공동체 소유 토지 등)과 마을회, 체육회 등과 연계한 상생모델 개발 등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3. 피렌체 국제수공예전시회 방문

□ 피렌체 국제수공예전시회 방문 개요

- 일 시 : 2023년 4월 27일(목), 14:00
- 장 소 : 피렌체 국제수공예전시회장
- 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수단
 - 피렌체시장 외교보좌관
 - 피렌체 상공회의소 관계자

□ 피렌체 국제수공예전시회 운영 개요

- 20세기 초부터 국가적으로 전시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유럽 전시사업 중 심지로서 주요 도시별 대규모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전시사업은 약 600억 유로 규모이며, 방문객은 연간 2천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 이탈리아 제품 수출 50%가 전시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시회가 수출산업의 핵심 사업임.
- 주요 품목으로는 가구, 섬유, 피혁, 식품, 패션 등이 있음.

□ 피렌체 국제수공예전시회 연수 내용

- 국제수공예전시회는 193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가 86회이며, 이탈리아 주요 도시별로 대규모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 피렌체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가죽, 보석세공, 유리공예가 전통적

으로 발달되어 이탈리아 내 최고의 강점 지역임.

- 피렌체 국제수공예전시의 지속가능성의 이유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며,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특히, 가죽을 다루는 방식, 나무를 건조하는 방식, 색감까지 현대화가 가미되지 않는 방식에 특색이 있음.
- 수공예품에 전통 계승과 관련하여 현재 수공예품 관련 종사자는 고령이 대부분이며, 수공예품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층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예 전통을 이어갈 젊은 층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국제수공예전시회를 담당하는 기관은 피렌체 시청이며, 피렌체 상공회의소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제수공예전시회에 일본 관련 제품들은 전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관련 전시품이 전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국가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2024년 국제수공예전시회에는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한국의 한복 등은 우수성은 피렌체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며, 향후 한국과 더욱 더 협력하여 국제수공예전시회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주에도 천연 색감으로 만들어 낸 갈옷을 비롯해 우수한 수공예품들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피렌체 상공회의소 직원 설명>



<피렌체 국제수공회전시회 관람>



<피렌체 국제수공회전시회 관람>



<피렌체 국제수공회전시회 관람>



<피렌체 국제수공예전시회 전경>

□ 정책적 시사점

- (제주 특산품 등 국제 수출과 연계) 이탈리아에서는 제주 마유로 만든 비누 등 향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함. 피렌체 수공예전시회와 같은 전통 있는 행사에 제주 특산품에 대한 홍보기회와 연계하고 관련 현지 유통업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 있음.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시장조사와 함께 도내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음.

4. 베네치아 시의회 방문

□ 베네치아시의회 방문 개요

- 일 시 : 2023년 4월 28일(금), 15:00
- 장 소 : 베네치아시의회
- 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수단
 - 베네치아시의회 의장 : 에르멜린다 디미아노
 - 베네치아시 상업생산활동 부시장 겸 시의원 : Sebastiano Costlonga
 - 베네치아시 사회정책 경제개발 관광 부시장 겸 시의원 : Simone Venturini
 -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 : 강형식 총영사
 -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 한국어과 : 강순행 교수

□ 베네치아시 개요

-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의 중심 도시이며, 동시에 해당 도시를 수도로 삼던 과거의 베네치아 공화국의 국명임.
- 구도심 도시 전체에 수로가 뚫려 배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물의 도시’로 유명하며, 현재도 베네치아 구도심 내부에는 자동차 도로가 없으나, 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수면이 상승하면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고, 오버투어리즘으로 환경오염이 주요 현안지역임.
- 베네치아 인구는 84만명이며, 이 중 베네치아 섬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5만명이고, 시의원 수는 36명임.
- 베네치아 시의회는 베네치아시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이며, 시의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평의회 논의 공간이자, 여-야 토론과 논의 그리고 결정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임.

- 특히, 2009년 베네치아 국립 카포스카리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에 한국어과가 설치되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임
- 또한 베네치아 비엔날레(LA BIENNALE DI VENEZIA)에 1995년 한국관이 설치되었으며, 2023년 5월 18일 개막되는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한국의 우수 건축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임.
- 이탈리아의 가장 우수한 관광지인 베네치아와 한국의 대표 관광지인 제주를 공통점이 많은 지역이며, 관광산업과 관련한 현안과 이슈 또한 유사점이 많은 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이탈리아 베네치아시의회는 2018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양 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과제 발굴과 관광객 수용력에 대한 공동연구와 공동연대 및 국제컨퍼런스 등 지속가능성장 방안 모색 등 교류가 활발한 지역임.

□ 베네치아시의회 연수 내용

<베네치아시의회 운영 주요 현황>

- 베네치아 시의회 의원과 의장의 임기는 각각 5년이며, 의장의 경우 재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평의회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전문관이 전문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임.
- 시의회 의원의 시장·부시장 겸직 여부에 대해 시장은 선출직이며, 10명의 부시장이 있다. 부시장은 시장임명, 직접선거, 외부전문가 초빙 구조임.

- 시의회 보좌관제도 여부에 대해 보좌관 제도는 없으며, 다만 부시장은 보좌관을 2명까지 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급여 관련해서도 부시장은 월 급여가 있으나, 시의회 의원은 월 급여는 없음. 다만 시의원이 회의 참석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당 70유로 수준으로 조사됨.
- 의회는 시장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음. 다만, 시장이 해임되면 의회도 자동 해산됨.

<베네치아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인사, 감사 기능 현황>

- 시의회 의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음. 주민자치회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상시 의견 제안 기구는 있으나, 한국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조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민이 필요사항 발생 시 시의원에게 건의하는 구조임.
- 베네치아시 주민투표제도 법적 규정 관련,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했을 시 주민이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시 주민을 참여시키고 있는 형태로 한국과 같은 법이 보장하는 주민투표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베네치아시에 독립된 감사기구 운영에 대해 감사업무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라 2개의 행정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음.
- 공무원 수는 지역경찰과 공립학교 교원까지 포함하여 약 2,300명 수준임.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은 있으나, 외국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청년 및 인구정책>

- 이탈리아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격차가 높아지고 있음. 다만 베네치아시의 청년실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관광도시로서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 유입 대안으로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 창업시 세금감면 등의 우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학교 한국어과 신설 등 특성화된 학과를 개설함으로써 유럽 각 지역의 유학생을 비롯한 국내 지역 학생들이 베네치아로 유입되고 전문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중에 있음.
- 결국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젊은 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1위는 은행원이며, 2위는 공무원임.

<과잉관광 대응 등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방향>

- **(섬지역인 원도심 물류비 지원 필요성)** 베네치아시는 제주와 같이 섬으로 본토와는 더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제도는 없음. 베네치아시에 있어 물류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큰 이슈이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인 것으로 조사됨.
- **(과잉관광 대응 방향)** 베네치아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고민이 있음. 하지만 갈수록 지나가는 관광지로 두드러지면서, 원주민수가 감소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 관광지 개발을 고민하고 있으며, 대체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을 분산하고 머무는 관광지로 거듭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최대 현안으로 여행 예약제 도입을 검토 중임.
- 관광세 징수와 관련하여 시에서 자체 세금액 결정은 불가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정부에서 징수하고 있음.

○ (물정책) 베네치아시는 제주와 같이 공수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음. 주민이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와 빗물이며, 상하수도 시설 요금 수준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음. 다만 수상도시라서 육지에 비해 비용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고, 바다 위 도시이기 때문에 보존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베네치아시의회 간담회>



<베네치아시의회 간담회>



<베네치아시의회 간담회>



<베네치아시의회 전경>



<베네치아시의회 간담회>

□ 정책적 시사점

- (섬지역으로서의 청년 등 인구정책) 제주의 이주열풍이 식으면서 순인구 증가가 감소하고 있음. 특히 핵심생산인구(25~49세) 감소 등 고령화되면서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베네치아 시책은 참고할만함.
 -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류를 참고하여 제주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학과신설·개편 및 각종 정책성과와 연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문화 정책과도 연계하여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4년 시행 예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용정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음.

5. 베네치아 운하 방문

□ 베네치아 운하 방문 개요

- 일 시 : 2023년 4월 29일(토), 10:00
- 장 소 : 베네치아 운하
- 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수단

□ 베네치아 운하 개요

- 베네치아시는 이탈리아 본도의 동쪽, 아드리아 해 끝단에 위치하고 있음. 인구는 약 26만명, 섬에는 5만명이 생활하고 있음.
- 이탈리아 본토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베니스)은 118개의 섬을 400여개의 다리와 150개의 운하로 연결된 수상도시임.
- 수상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는 예로부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18세기 말 나폴레옹에 의해 점령당할 때까지 1000년간 독자적인 문화를 지니면서 지중해의 번영을 누려왔던 곳임.
- 본토와의 사이에 1932년 자동차 다리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교역이 시작되었으며, 서울 여의도의 3.5배에 불과한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3천만명 정도였고, 최근에는 하루 방문객이 5만여 명에 달하고 있음.
- 교통체증이 없고 주변 경치도 감상할 수 있는 수상교통이 베네치아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 있음.
-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베네치아는 자동차 이용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상택시, 수상버스, 곤돌라가 관광산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시 내에서 베네치아의 대중교통은 수상버스로 불리는 바포레토(Vaporetto)와 수상택시인 모토스카피(Motoscafi), 곤돌라(Gondola)가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 대운하 외에 작은 규모의 150여개의 수로를 달리고 있음.

○ 수상버스 바포레토




- 베네치아는 수상버스인 바포레토가 노선 번호를 달고 운하를 통해 시내를 누비고 있으며, 바포레토의 운항 노선은 20개이고, 여름철에는 야간 호선도 임시로 개통.
-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상버스는 1호선, 2호선, 6호선이고, 요금은 1일 이용권이 9.5유로이며, 바포레토의 주요 노선은 다음과 같음.

<표 1> 바포레토 주요노선

구 분	주요노선
바포레토 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광장(P.LE ROMA)에서 산타루치아 기차역(FERROVIA), 리알토 다리(RIALTO), 산 마르코 광장(S.MARCO VALLARESSO & S.MARCO-S.ZACCARI), 리도섬(LIDO S.M.E) 까지 운행 - 베니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탑승하게 되는 기본 노선 - 로마 광장에서 산마르코 광장까지 약 45분, 리도섬까지 약 1시간 소요
바포레토 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마르코광장(S.MARCO VALLARESSO & S.MARCO GIARDINETTI & S.MARCO-S.ZACCARIA)에서 리알토 다리(RIALTO), 산타루치아 기차역(FERROVIA), 로마 광장(P.LE ROMA)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하를 약 35분만에 횡단 - 1호선과 함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호선

<p>바포레토 6호선</p>	<p>- 로마광장(P.LE ROMA)에서 시작해 리도 섬까지 가는 가장 빠른 노선 으로 31분 소요됨</p>
-----------------	--------------------------------------------------------------

<그림 1> 베네치아 수상버스 바포레토 주요노선

<p>바포레토 1호선</p>	 <p>Linee di navigazione \ Waterborne routes</p> <p>1 P.LE ROMA - FERROVIA - RIALTO - S.MARCO - LIDO S.M.E.</p>
<p>바포레토 2호선</p>	 <p>Linee di navigazione \ Waterborne routes</p> <p>2 S. MARCO \ S. ZACCARIA - GIUDECCA - TRONCHETTO - P.LE ROMA - FERROVIA - RIALTO - S.MARCO \ S.ZACCARIA</p>
<p>바포레토 6호선</p>	 <p>Linee di navigazione \ Waterborne routes</p> <p>6 P.LE ROMA - ZATTERE - GIARDINI - S.ELENA - LIDO S.M.E.</p>







<베네치아 수상버스 바포레토>

○ 수상택시 모토스카피

- 베네치아 수상택시인 모토스카피는 개인용 택시와 일반용 택시로 구분되며 대부분 콜택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수상택시의 요금은 9.5유로(한화 약 14,000원)이며, 18분에 한 대씩 운
- 베네치아 시에 라이선스²⁾를 등록한 수상택시는 243척으로 나타났으며, 수상택시 탑승객은 12인까지 탑승이 가능함.
- 모터보트 형태인 수상택시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신혼 여행객과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아 호텔 등 대부분의 건물마다 선착장 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2) 상표로 등록되어 해당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리를 보유한 사람을 말함.

	
<p><베네치아 수상택시 모토스카피></p>	<p><베네치아 수상택시 모토스카피> 수상택시 넘버</p>
	
<p><베네치아 수상택시 모토스카피> 수상택시 운전석</p>	<p><베네치아 수상택시 모토스카피> 수상택시 탑승석</p>

○ 곤돌라

- 곤돌라는 이탈리아어로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곤돌라의 이름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오가는 선박 이름에서 유래되었음.
- 베네치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곤돌라는 11세기 이후부터 베네치아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고, 16세기에는 사람, 야채, 식료품도 운반하는데 사용되었음.

- 현재 관광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곤돌라는 길이는 7~10m, 너비는 1.2~1.6m 정도이며 선수(배앞쪽)와 선미(배뒤쪽)가 휘어져 올라가 있는 모양임.
- 중앙에 낮은 객실에는 5~6명을 태우고, 선미에서 한사람의 뱃사공이 3m 정도의 긴 노를 저으며, 한쪽으로만 노를 젓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임.
- 높게 휘어져 올라가 있는 선수와 선미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이 곤돌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베네치아 수상교통 곤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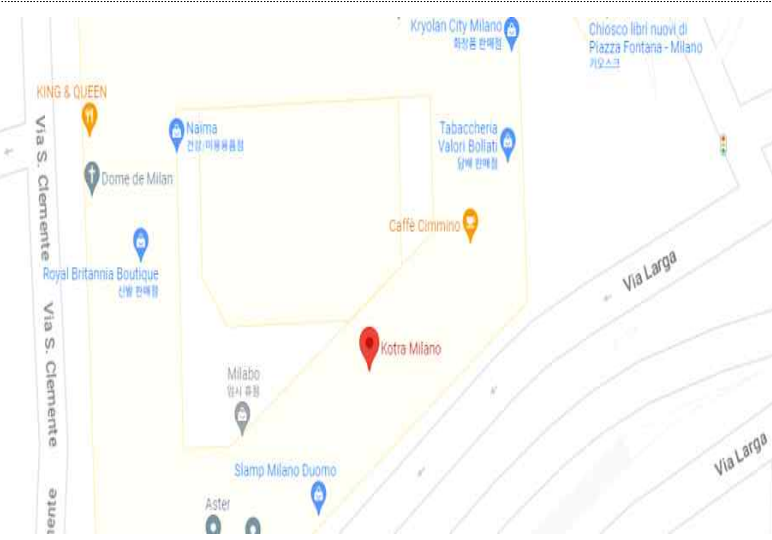
6.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방문

□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방문 개요

- 일 시 : 2023년 4월 30일(일), 10:00
- 장 소 :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 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연수단

□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개요

- 이탈리아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주요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 개발 및 기획, 투자유치, Mna, 투자진출, 지사회, 물류, 전시 및 마케팅, 조사대행, 시청개척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지시조사 등을 통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위치	Via Larga 2, 20122 Milano, Italy	
연락처 및 이메일	(39-02)795147, 795813, 796384	
	kotramil@k otra.it	

자료 : 코트라 밀라노무역관 홈페이지

□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연수 내용

-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2022년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IMF 4.2%, OECD 4.1%, 이탈리아 통계청 4.4%, EU 4.2%, EIU 4.4%로 전망함.
- 이탈리아는 유럽 중 제조업이 강한 국가이며, 유럽 4대 소비시장으로 불리고 있음.
- 시장구조는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이 전체 15%로 유럽 2위(1위 독일)임.
- 이탈리아 제조업 기반은 기계산업을 비롯한 부품산업과 보석, 신발, 가구, 직물, 의류 등의 경공산업으로 구분되어짐.
- 코트라가 도출한 이탈리아 SWOT 분석을 살펴보면, 강점으로는 산업 전 분야가 고르게 발달하고 있는 국가이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물류의 중심지임.
- 약점으로는 관료주의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 길다는 점과 다품종 소량생산의 강점을 가진 유통과 판매 시스템이 미흡함. 기회요인으로는 유럽 국가 중 4대 시장으로 불리는 경제대국이라는 점과 위협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과 시장 양극화에 따른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인지도가 약하다는 점임.
- 코트라에서 진단한 수출유망품목으로는 진단용 시약, 프로필렌, 금속절삭 선반, 금속머시닝센터, 합성스테인플 섬유가 있음. 서비스 산업 분야는 전자상거래플랫폼, 법률·회계 컨설팅, 물류창고 대여업, 사무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비대면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됨.



<밀라노 코트라 무역관 방문>

□ 정책적 시사점

- (코트라 등 도내 산업육성관련 기관과의 내실 있는 협업체계 구축) 민선 8기 도정은 신남방 정책으로 대변되는 수출 정책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기 이전에, 이미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코트라 제주사무소 등 정부소속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코트라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 업체와 연계하여 업종별 육성 및 마케팅, 수출지원 등 체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근거) 제주특별법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에 따라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음. 향후 조례로 제정하여 정기적인 협의근거를 마련하여 제주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이탈리아 지방분권을 통해 바라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강화

□ 이탈리아 헌법 내 지방자치권 강화 규정

-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은 전체 1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규정을 하고 있음.
 - 이탈리아 공화국은 국가에 의존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행정적 분권화를 이행하고 이에 대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와 분권 요구에 대한 입법 원칙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5조, 2023).

<이탈리아 헌법 제5조>

국가는 하나이며 분할될 수 없다. 국가는 지방자치를 인정 및 촉진하고, 국가에 의존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최대한의 행정적 분권화를 이행한다. 국가는 자치와 분권화의 요구에 따른 입법 원칙과 방식을 채택한다.

- 이탈리아 공화국은 시, 도, 대도시, 주, 국가로 구성되며, 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조례와 권한 및 기능을 가진 자치단체임(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114조, 2023).

<이탈리아 헌법 제114조>

공화국은 시, 도, 대도시, 주, 국가로 구성된다. 시, 도, 대도시, 주는 헌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조례와 권한 및 기능을 가진 자치단체이다. 공화국의 수도는 로마이다. 그 지위는 국법으로 정한다.

- 또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116조에 근거 특별자치지역을 규정하고 있음
 -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116조에서는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Friuli-Venezia Giulia), 사르데(Sardinia), 시칠리아(Sicily),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Südtirol),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Vallée d'Aoste)에는 헌법률로 채택된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자치의 형태와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116조, 2023).

<이탈리아 헌법 제116조>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Friuli-Venezia Giulia), 사르데(Sardinia), 시칠리아(Sicily),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Südtirol),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Vallée d'Aoste)에는 헌법률로 채택된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자치의 형태와 조건이 부여된다.

트렌티노알토아디제 주는 자치도 트렌트(Trent)와 볼차노(Bolzano)로 구성된다.

제117조 셋째 문단 그리고 둘째 문단의 제1호(치안판사의 조직적 요건에 국한함)와 제n호 및 제s호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된 추가적 특별 자치 형태와 조건이 국법에 따라 다른 주에 규정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주의 발의로, 제119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지방 기관과 협의한 후에 진행한다. 해당 법률은 국가와 관련 주의 합의를 바탕으로, 양원 모두의 절대다수로 승인된다.

- 헌법 117조에서는 입법권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및 국제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주에 귀속시키며, 17개 각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적 입법권을 가지고 있음(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117조, 2023).

a) 국가의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국가와 유럽연합의 관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아니한 국민의 비호권과 법적 지위	l) 관할 및 절차법, 민법과 형법, 행정사법제도
b) 이민	m) 국가 영토 전체에서 보장되는 민권 및 사회권에 관련된 혜택의 기본적 수준 결정
c) 국가와 종파의 관계	n) 교육에 관한 일반 규정
d) 국방과 군대, 국가 안보, 군비, 무기와 폭발물	o) 사회보장제도
e) 통화, 저축 보호 및 금융시장, 경쟁 보호, 외환 제도, 국가 조세 및 회계 제도, 공공회계의 조정, 재정자원 평준화	p) 시, 도, 대도시의 선거법, 행정기관, 기본적 기능
f) 국가 기관 및 관련 선거법, 국민 투표, 유럽의회 선거	q) 관세, 국경 보호, 국제 질병예방
g) 국가와 전국 공공기관의 법적·행정적 조직	r) 도량형, 표준시, 국가·주·지방 행정 데이터의 통계적 조정 및 전산화, 지적 재산
h) 공공질서와 안전(지방 경찰 제외)	s) 환경, 생태계, 문화유산 보호
i) 국적, 국민의 지위 및 등록사무소	

자료 :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2023)

- 이탈리아는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시칠리아 섬을 비롯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자치단체 지위권을 보장하고 있음.
-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Friuli-Venezia Giulia), 사르데(Sardinia), 시칠리아(Sicily),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Südtirol),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Vallée d'Aoste) 지역의 특별자치 보장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제기는 높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환경, 특수성에 부합한 특별법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강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의미와 한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에 근거하여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2023)으로 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 중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 관련하여 제주 지역사회의 평가는 높지 않음.
- 제주 지역사회가 바라보는 고도의 자치권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여 자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경영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바라보

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격은 시범도와 그동안 4,660건에 달하는 권한을 이양하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을 부여하였다고 판단함.

- 그러나 제4조(국가의 책무)를 살펴보면 국자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여야 하고, 국세의 세목(稅目) 이양이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특별자치도 출범 17년여가 경과하는 현재 실행적 측면은 미흡함.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제주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근거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제주특별법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2023)

<제주특별법 제4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과 함께 현재까지 6번의 단계별 권한이양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4,660건의 권한 이양은 제주의 발전에 발판이 되었으나, 단계별 권한 이양 소요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하락과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시의성이 약화됨.
 - 단계별 권한이양 절차를 살펴보면 ①과제 확정, ②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 ③지원위원회 제출, ④정부(안)으로 확정, ⑤국회 제출, ⑥국회 의결, ⑦공포

-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제1단계(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정), 제2단계(9개월), 제3단계(1년 2개월), 제4단계(1년 10개월), 제5단계(2년 4개월), 제6단계(3년 2개월), 제7단계(2019년 9월 과제 확정 후 현재 국회 계류)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됨(대한민국 헌법, 2023).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97조 ‘특례의 인정’, 2023).

<지방자치법 제197조(특례의 인정)>

-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지방자치사의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지위와 보장에 대해서는 미흡함.
- 이탈리아는 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고,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법에 의한 특별자치단체를 두고 있음.
 - 특히, 헌법을 통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문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권 범위해석에 대한 용이성을 가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시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제주지역을 비롯한 학계를 중심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별자치도의 지위만을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더욱이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 헌법에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방향>

- 기본적으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2005.4)의 이행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 1단계는 ‘기능적 분권화’로 현행 헌법하에서 특별법 제·개정 등을 통한 최대한의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하고
 - 2단계는 ‘권력적 분권화’로 헌법개정을 통해 준연방제적 분권국가(1국 2체제)를 지향하여, 지방의회에 조세권 및 지역 내 징수 국세전액을 지방재원으로 편입 등을 제시하고 있음.

- 3단계는 제주의 모델이 성공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분권국가를 구현하는 데 있음.
 - 제주는 기본구상안에 따라 1단계 마무리 전략과 2단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마무리 전략은 정책기능별 또는 제주특별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도개선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주지원위원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연계·강화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단계 전략은 개헌 시 제주가 준연방제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곧 출범하는 강원, 전북 특별자치도 등 관심있는 광역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현실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의회, 도, 학계, 유관기관 등 도민사회의 깊은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례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주권 강화

<이탈리아 연수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

- 이탈리아는 1992년까지 시의회에 선출된 시장을, 1993년부터 시장에 대한 주민직접선출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탈리아 국민들은 시장 직선에 대한 시민 주권 강화에 큰 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시민이 직접 지역을 운영할 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이탈리아 사례는 제주의 행정시장 체제에서 주민직선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시군의 폐지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갈등 이슈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
 - 갈등 이슈는 시군 폐지에 대한 당시 목표인 지역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등이 있었으나, 지난 17년 여간 도민의 체감도는 낮음.
-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는 핵심 사업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주민투표, 2026년 시장 직접 선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현행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적 평가와 함께 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전략 구축이 필요함.

2. 이탈리아 주요 도시 관광세 도입을 통한 제주의 환경보전분담금 시사점

□ 이탈리아 관광세

- 이탈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유적지를 비롯한 관광 자원 보전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로마시는 2010년부터 관광세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로마시에 숙박하는 관광객은 1일 최고 10유로까지 관광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로마시는 연간 약 2억유로(3천억)의 재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베네치아시는 역사지구를 비롯한 주변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베네치아 시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숙박비에 관광세가 포함되어 있음.
 - 금액은 1인당 3~10유로(4,000원~14,000원)

- 이탈리아 지방자치단체 내 관광세 신설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탈리아 정부에서 관광세 신설 추진 시 지역 내 숙박업계 중심으로 반대가 높았음. 관광세로 인해 이탈리아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였으나, 시 관자 면담 시 당초 예상되었던 관광객 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관광세 도입이 정착되어 역사보전과 재정확충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정부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소액의 관광세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 향상, 공정관광 추진, 관광업계 탈세에 대한 고강도 감시 등 이탈리아 관광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분담금 신설에 대한 시사점**

- 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이며, 동아시아 최고의 섬 관광지임.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한 제주의 자연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음.

구 분	내국인 관광객 수	외국인 관광객 수	전체 관광객 수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1997년	4,178,789	184,403	4,363,192	95.8	4.2
1998년	3,067,415	223,701	3,291,116	93.2	6.8
1999년	3,419,871	246,965	3,666,836	93.3	6.7
2000년	3,822,509	288,425	4,110,934	93.0	7.0
2001년	3,907,524	290,050	4,197,574	93.1	6.9
2002년	4,226,019	289,496	4,515,515	93.6	6.4

2003년	4,692,373	221,017	4,913,390	95.5	4.5
2004년	4,603,297	329,215	4,932,512	93.3	6.7
2005년	4,641,552	378,723	5,020,275	92.5	7.5
2006년	4,852,638	460,360	5,312,998	91.3	8.7
2007년	4,887,949	541,274	5,429,223	90.0	10.0
2008년	5,281,501	540,516	5,822,017	90.7	9.3
2009년	5,891,584	632,354	6,523,938	90.3	9.7
2010년	6,801,301	777,000	7,578,301	89.7	10.3
2011년	7,695,339	1,045,637	8,740,976	88.0	12.0
2012년	8,010,304	1,681,399	9,691,703	82.7	17.3
2013년	8,517,417	2,333,848	10,851,265	78.5	21.5
2014년	8,945,601	3,328,316	12,273,917	72.9	27.1
2015년	11,040,135	2,624,260	13,664,395	80.8	19.2
2016년	12,249,959	3,603,021	15,852,980	77.3	22.7
2017년	13,520,859	1,233,525	14,754,384	91.6	8.4
2018년	13,089,129	1,224,832	14,313,961	91.4	8.6
2019년	13,560,004	1,726,132	15,286,136	88.7	11.3
2020년	10,023,678	212,767	10,236,445	97.9	2.1
2021년	11,960,159	48,278	12,008,437	99.6	0.4
2022년	13,803,058	86,444	13,889,502	99.4	0.6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2023)

- 대량의 쓰레기 방출로 인해 환경에 대한 수용용량의 대한 문제 등이 제기 됨.
- 이에 제주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민, 도민 등의 공감대 형성 등의 문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p><아시아경제, 2023.4.19.></p>	<p><뉴스1, 2023.2.16.></p>
	
<p><제주의소리, 2022.9.16.></p>	<p><한라일보, 2022.4.6.></p>

<p>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재추진..관광업계 '반대'</p> <p>김연희 입력 2020. 10. 12. 22:00</p> <p>2</p>  <p>[KBS 제주] [영커]</p> <p>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 오염 유발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보전기여금'</p>	<p>제주, 관광객에 '입도세' 부과 시동 '환경 보전 목적'...관광업계 반발</p> <p>김영환 기자 입력 2020.10.25 18:48 2020.10.25 19:07 10 1</p> <p>원희룡 지사,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식화 관광업계 반발과 입법화 과정도 난재 산적 강원도는 관광 경쟁력 약화 우려로 포기</p> <p>많이 본 뉴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싱있네? 아직도 가세?'... 유머서 논란 재점화 2 3일 여의가 열다 보고 생김 뒤 총기난사 1명 사망...미국... 3 내일 전국에 흩날린다...충북 요양원 64기 4 진서면, 삼면 광물굴레...'네거 싫어하는 외향' 
<p><KBS제주, 2020.10.12.></p>	<p><한국일보, 2020.10.25.></p>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법정 타당성을 제시함.
 -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으며,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으로 예상(아시아경제, 2023.4.19. 기사내용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분담금 법 개정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 보전과 관련한 분담금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고려해 볼 사항임.
- 이탈리아 사례를 통해 재정확충에 대한 의미도 크지만 궁극적으로 자연을 보전하고 유적지를 보전하여 더 많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관광지를 유지한다는 것은 제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3. 이탈리아 청년층 인구 감소 대응 사례를 통해 본 제주의 시사점

○ (이탈리아 사례) 이탈리아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청년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과,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피렌체는 전통적으로 수공예품이 발달한 지역으로 수공업 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유가 현대화가 아닌 전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수공예품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피렌체시 기간산업에 대한 지역 이슈로 등장함.
- 베네치아시 또한 전통적인 관광산업 지역으로 지역이 형성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관광객 감소로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베네치아 시는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양성과 베네치아 섬 이외의 대체 관광지 정책 추진 중임.
- 또한 대학 육성을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타 지역 유학 학생이 졸업 후 베네치아 시에 정착할 수 있는 주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 중임.

○ (제주 정책시사점) 제주의 이주열풍이 식으면서 순인구 증가가 감소하고 있음. 특히 핵심생산인구(25~49세) 감소 등 고령화되면서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의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한류를 참고하여 제주 소재 대학과 연계하여 학과신설·개편 및 각종 정책성과와 연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문화 정책과도 연계하여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4년 시행 예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용정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에 대한 시사점**

- 제주특별자치도 20대 인구 유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18년 145명, 2019년 1,029명, 2020년 1,178명, 2021년 1,417명, 2022년 1,501명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2023)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제주도 청년인구는 168,726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2050년 제주도 청년인구는 10만 6천명, 청년인구 비율은 15.2%로 전망되고 있음.
 - 청년인구 순유입 규모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51명 순유입에 그치고 있음
 - 청년 43.2%는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14.0%는 주거여건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주거 관련 정책으로 「보증금, 전세금 대출지원(57.7%)」이 가장 필요하고 조사됨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는 4,035명으로 청년인구의 2.4%(전국 2.0%)임
 - 본인 소득(월)에 「만족」 23.6%, 「불만족」 32.6%
 - 제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부족 (50.9%)」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23.5.25.국회 통과,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되면서, 법과 관련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연계할 필요가 있음.
- 사회에 무난하고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차원에서 주요 정책이슈들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Museo Nazionale di Castel Sant'Angelo(카스텔 산탄젤로 국립박물관)을 통해 본 ‘제주 4.3주간’ 시사점

○ (배경 및 필요성) 이탈리아 방문기간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해방일 주간이었으며, 이 기간에 공공기관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스텔 산탄젤로 국립박물관을 입장하였음.

- 방문일시: 4.25.화.(공휴일: 이탈리아 해방일)



- (카스텔 산탄젤로 국립박물관 운영 현황) 국립박물관의 입장권은 평소 고가의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음.
 - 입장료는 €15(유로)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2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 연수단이 방문했던 4월 24일은 이탈리아 해방일(Liberation Day)로서 국가공휴일을 기념하여 무료 입장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음.

Information and reservations: tel. +39 06 32810
 (Booking call center active from Monday to Friday from 9.00 to 18.00; Saturday from 9:00 to 13:00)

TIMES

- from Monday to Sunday from 9.00 am to 19.30 pm the ticket office closes at 18.30 pm
 Closed on 1 January, 1 May and 25 December, except for extraordinary openings arranged by the Ministry for Cultural Heritage and Activities and Tourism.

RESERVATIONS

Online booking and purchasing tickets - Buy online is strongly recommended.
 Booking fee € 1,00

TICKETS

€ 15,00 full price; € 2,00 subsidized.

자료: 홈페이지 <https://www.castelsantangelo.com/>

- 국립박물관이 이탈리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방일에 무료 입장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의미를 특별한 방식으로 되새기고 유럽 각 지역, 전세계에서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에 이탈리아 국가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있었음.



- (무료 입장 티켓 발급 의미) 무료로 입장을 하더라도 티켓을 발매하는 것은 방문자가 그날의 의미를 확인하고 기념으로 소유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음. 더불어 박물관 입장에서도 방문수를 계량적으로 확인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카스텔 산탄젤로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 티켓>



<제주 4·3에 시사하는 의미>

- **(의의)** 카스텔 산탄젤로 국립박물관 운영 사례는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지향하는 제주 입장에서는 연간 1천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국내외 관광객을 염두했을 때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 판단됨.
 - 관광지, 박물관 등 직영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입장 정책 시행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에 관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판단됨.
- **(추진 방향)** 제주 지역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제주4.3역사의 전국화, 세계화 차원의 전략적 정책으로 매년 ‘4월 3일 지방공휴일’ 또는 4월 3일을 전후로 ‘4.3주간’을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과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입장료 무료 정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현행 다음과 같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관의 휴관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각 기관의 운영상의 특수성, 상징성, 대외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료입장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4.3 지방공휴일 참여확대도 연계 추진함으로써 4.3의 전국화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 및 확산시켜 나가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4월 3일은 지방공휴일로 최소 근무인력(근무자는 대체휴무 실시하고 있음)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 기간에 무료입장을 실시하게 되면 근무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운영 조례 현황>

- ① [농수]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② [농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③ [농수] 제주특별자치도 현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④ [농수]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⑤ [문광]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도립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및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 ⑥ [문광]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 ⑦ [문광]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⑧ [문광]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 ⑨ [문광]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거문오름, 만장굴, 성산일출봉, 유산센터)
- ⑩ [복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⑪ [복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⑫ [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 ⑬ [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⑭ [교육]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조례

□ 베네치아 운하 사례를 통해 본 제주의 시사점

- (베네치아 사례) 서울 여의도의 3.5배에 불과한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3천만명 정도였으며, 최근에는 하루 방문객이 5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 베네치아 내에서는 차량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없고 주변 경치는 도보 또는 수상교통으로 이동해야 한다.
 - 특히, 수상교통인 수상택시, 수상버스, 곤돌라가 베네치아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한강, 통영 등에서 수상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수상택시 도입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 수상택시 도입에 대한 시사점

- 제주는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은 1,500만명이 방문하는 도시이다.
- 또한 제주의 부속 섬으로는 추자도, 우도,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등이 있으며, 이 섬에는 도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 이들 섬 중에서 이탈리아의 베네스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섬은 비양도이다.
- 베네스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데,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약 1.85mile³(2.98km) 떨어져 있으며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섬 속에서는 차량이 다니지 않고 사람들은 모두 도보로 이동을 해야한다.
- 비양도에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림항에서 운항하는 도항선을

3) 제주해양경찰서 측정자료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항선은 2선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만 운영됨에 따라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의 급한 용무 발생시에는 특별한 이동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 이탈리아 베네스는 수상버스, 수상택시, 곤돌라를 이용해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양도 역시 수상버스나 수상택시 등을 도입하여 관광산업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도항선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상택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택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검토와 운영 주체,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 : 연수단 명단(21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9명)

구분	소 속	성 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철남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이정엽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하성용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동수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인성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최춘규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김홍옥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현혜정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김소운

□ 제주특별자치도(8명)

구분	소 속	성 명
1	제주특별자치도 대변인	여창수
2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김희찬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운영과장	홍원석
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협력팀장	한예승
5	제주특별자치도 재산관리팀장	지경임
6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오영한
7	제주시 기획예산과장	윤은경
8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	김동언

□ 합의제행정기관(1명)

구분	소 속	성 명
1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이동효

□ 제주연구원(3명)

구분	소 속	성 명
1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2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좌민석
3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원수